

[기획]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10> 문화 나눔의 보루 '문화공동체'

꼬마도서관, 작지만 소중한 '텃밭'

강아지똥, 짝꿍마을, 짜장, 알짬, 서구 해뜰마을, 모퉁이, 꼬바기...

이름도 예쁜 이곳은 대전에 있는 어린이도서관들이다. 이 도서관들은 모두 시나 구청 등 공공기관이 아닌, 엄마들이 노력과 정성을 담아 일궈낸 공간들이다.

돈을 모으고, 책을 후원 받고, 구청 등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공간을 얻어내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들이 발로 뛰어 만들어낸 소중한 도서관으로 운영역시 주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가 맡고 있다.

지난 2000년 첫 어린이 도서관인 모퉁이가 문을 연 이래 지난해에 단 5개가 새로 생겨났고, 현재 '대전 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를 결성,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 도서관의 규모는 90~150㎡(30~50평), 장서는 3천~1만여권 정도로 공공도서관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꼬마 도서관들은 단지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심시일반 힘을 모아 문화 강좌, 강좌, 문화체험 등도 진행하는 문화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화 사랑이 녹아 있는 문화공동체는 '문화 나눔'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이다. 내 아이, 우리 가족에서 벗어나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누며 넓게 보고 느끼는 문화공동체들이 '문화 나눔'을 실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동체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중 눈에 띄는 게 주민들이 만든 작은 도서관들이다.

하지만 광주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작은 도서관의 활동이 미미한 상태.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연말 물꼬를 튼 광주 풍양지구 아이숲 어린이도서관의 행보가 눈에 띈다.

풍양지구 롯데마트 4층에 문을 연 아이숲 어린이 도서관은 동화를 공부하던 주부들이 지역 공동체 운동을 펼치던 광주시민센터와 의기투합, 탄생시킨 공간이다.

진봉남씨 등 엄마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전국의 어린이도서관을 탐방했고,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공부를 하며 개관작업을 진행했다.

시민센터가 종자돈을 낸 후 동화작가, 지역 주부 등 일반시민들이 건립위원으로 참여하며 정성을 보냈다. 도서관 장서 역시 직접 구입한 것도 있지만 코흘리개 어린이부터 동네 주민까지 한권에서 많게는 수십권까지 기증한 것들이다.

이곳 역시 도서관 이상의 역할을 한다. 주 6일(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문을 여는 도서관에서는 엄마들이 사서로 봉사하며 매일 오후 4시 동화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도 개최한다. 또 하나 문화에서 소외된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찾아



지역 주민들이 작은 힘을 모아 개관한 광주 아이숲 어린이도서관은 책 읽기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문화공동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심시일반 힘 모아 기행·강좌·체험 공동체 꾸려

다문화 가정 등 소외된 이웃 위한 문화 나눔도

가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찾아가는 도서관프로그램'은 '문화 나눔'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엄마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아이숲 어린이도서관에는 도서관 운영 등에 대한 노하우를 알아보기 위해 광주 북구 등 타 지역 주부들이 방문이 잦은 편이다. 현재 광주시 북구 비엔날레 전시장 인근에도 도서관이 들어서 예정으로 있는 등 조금씩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나주 배꽃도서관은 어린이 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이다. 나주 부영아파트의 경비실 곁에 마련된 작은 서가에서 출발한 배꽃 도서관은 지금, 2만 3천권의 장서를 갖춘 멋진 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조금 성격이 다른 '나눔드림 책방'도 있다. 광주 시립도서관이 저소득층 마을에 만드는 작은 도서관인 나눔드림 책방은 2006년 7월 광주임마누엘 장애인교회에 1호점을 연 이래 무지개 지역 아동센터,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열린지역아동센터, 사직 지역 아동센터 등 현재 7곳이 운영중이다. 시립도

서관이 자료와 도서 지원, 도서관 업무 교육 등을 해주고 운영은 복지 시설 등에서 맡는다.

광주에서 활동중인 '수상한 교육문화 공동체-결'은 대안학교 건립을 꿈꾸는 이들이 만든 문화예술공동체다.

'결'은 지난해부터 2월말까지 '악기와 만나', '노래하는 아이들' 등으로 구성된 '꿈꾸는 샵 & 플랫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문화 감수성을 키워왔다. 다문화 가정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악기와 만나'는 아이들이 6주 동안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들을 직접 배워보고, 연주하며 관람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노래하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마친 아이들은 지난 2월 무대에 올랐다.

'결'은 올해에는 다문화 연구학교인 관천초등학교와 공동으로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 학교문화예술교육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대구의 틈새 청소년학습문화공동체는 대학생 자

원봉사자들이 소년소녀 가장이나 한 부모 가정 청소년처럼 소외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만든 단체다.

틈새는 학업 지도를 해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감수성을 키워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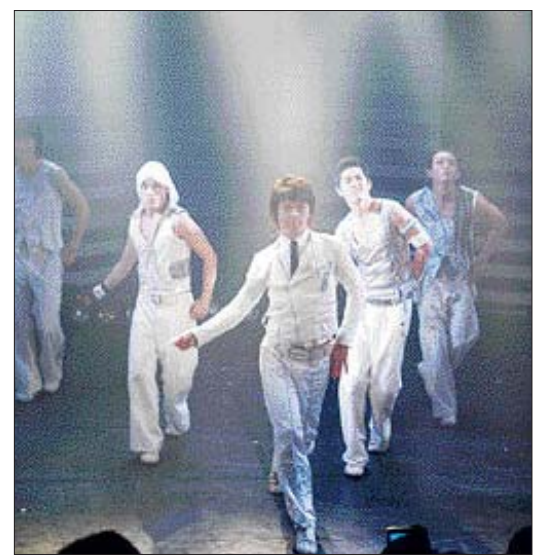
학생들은 연극과 뮤지컬, 탭댄스, 밴드,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고 해마다 연말이면 성과물을 무대에 올린다. 지난해에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등을 무대에 올렸고 올해는 창작극 '당당하게'를 준비중이다.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인터넷 음악방송인 '틈새's 세레나데'도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아이숲 어린이도서관 정봉남 관장은 "주민들이 심시일반 힘을 모아 함께 만드는 우리 도서관은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책읽고 놀 수 있는 공간이고, 어른들에게는 사랑방 같은 곳"이라며 "운영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작은 문화공동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우리 주변의 문화적 환경이 훨씬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올해 '문화바우처' 사업 시작



올 첫 프로그램인 댄스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신나는 예술여행'에 신청

저소득 계층 문화 향유 지원 사업인 문화바우처 2008년 사업이 시작됐다.

지역 문화바우처 운영기관인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사)전남장애인문화협회는 11일 신나는 예술여행(www.artstour.or.kr)을 통해 올해 첫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 등 사업을 시작했다.

광주의 올해 예산은 9천800만원, 전남은 2억2천300만원이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문화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이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는 회원들이 가장 번거롭게 생각했던 회원 등록 제도를 간소화한 게 특징. 지난해와 달리 정회원 이 되기 위한 증명서 제출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서 회원 등록만 하면 정회원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또 1년간 이용 가능한 회원별 포인트(5만 포인트) 지급 방식도 5만 포인트를 선지급하던 종전과 달리 0 포인트에서 시작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하는 누적식으로 변경됐다.

한편 광주 지역의 올 첫 프로그램은 오는 22일 오후 4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댄스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며 현재 300명에 한해 신청을 받고 있다.

이용방법은 신나는 예술여행에 회원 등록후 포인트를 지급받고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381-22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 나눔 현장, 알려주세요

문화는 나눔수록 더욱 커집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객석 기부, 예술인들의 공연 기부, 기업체의 예술단체 지원 등 아름다운 문화나눔 현장을 찾아갑시다.

작은 목소리로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향기로운 문화 나눔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일보사(062-220-0661, mekim@kwangju.co.kr) 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062-381-223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매매 및 교환 전남 신도청앞 일반 상업지, 숙박, 위락시설부지(건축가) 140평평당 700만절증가, 상가건물 교환상담 환영 011-330-9365 (주인직)

솔로몬공인중개사 여수 엑스포전지역 (061)644-9644

여주시 돌산읍 우두리 분양택지 주거지역 평당: 60만~70만 여주시 돌산읍 우두리 분양택지 상업지역 평당: 160만~250만원 여주시 돌산읍 우두리 자연녹지 2차선 도로접 조망 경관최고 1200평 평당매가: 20만원 여주시 돌산읍 우두리 자연녹지 도로접 조망 경관최고 1000평 평당매가 15만원 여주시 돌산읍 울림리 관리지역 2차선 도로접 조망 경관최고 5000평 평당매가: 7만원

토지공사 분양택지 돌산택지지구. 엑스포행사장 위락시설지구. 숙박시설 시세보다 싼 매물 다량보유 돌산지구 토지공사택지매매전문 ★매물 다량보유 상담환영★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목욕탕 임대 급히 구함 1. 지 역 : 광주시내 2. 조 건 : 보증금 2억까지 가능, 가스보일러 이더 대출이 적은 물건

시의 농장부지 급히 구함 1. 지 역 : 영암 무안 함평군 내 2. 면 적 : 3-4만평 3. 조 건 : 차량진입이 가능한 밭이나 아산 (신림 밭채 가능한 산)

상가 건물 급매 1. 지 역 : 광안구 우산동 주공아파트 앞, 대지304㎡(92평) 지하1층 지상6층 건물1160.19㎡(351평) 임대보증금 1억8천만원 월 월450만원 매대가 8억원

수익성 좋은 원룸 1. 광안구 소촌동 금촌타이머 인근, 대지933㎡(282평) 건평1299㎡(393평) 월세30실 투룸 6실 주세 2실 보증금4억 2800만 월 653만원 대출 4억원, 매대가 11억5천만원 2. 광안구 신기동 신축건물 대지208㎡(63평) 건평380㎡(115평) 월세9 투룸3 매대가 4억 2천만원

저희 업소는 20년 가까이 중개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토지의 매매를 전문적으로 중개 합니다. 부동산 관련 직종의 전문가와 입지선정에서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병원, 공장, 유흥, 식당, 모텔, 차고지, 전월주택, 주유소및가스충전소 부지, 투자용토지, 상가건물

국민공인중개사 011-635-7939, 010-3114-6103

건물 1. 주월동 5억 평원원매매 2. 798평 빌딩 급매 3. 139평 빌딩 20x10m코너 4. 129평 빌딩 20x10m코너 5. 129평 빌딩 20x10m코너 6. 129평 빌딩 20x10m코너 7. 129평 빌딩 20x10m코너 8. 129평 빌딩 20x10m코너 9. 129평 빌딩 20x10m코너 10. 129평 빌딩 20x10m코너

주요소 전문중개 1. 89억 주유소 급매 2. 1395억 시내 주유소 급매 3. 1395억 시내 주유소 급매 4. 1395억 시내 주유소 급매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011-612-3421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1. 운천지구 신축6층건물 긴급매매 2. 월산동 [구 남양호동] 긴급 매각 3. 신안동 시가지 대면 6층 건물 4. 광안동 신축6층건물 5. 광안동 신축6층건물 6. 광안동 신축6층건물 7. 광안동 신축6층건물 8. 광안동 신축6층건물 9. 광안동 신축6층건물 10. 광안동 신축6층건물

2007년도 광주지역 예식장 선호도!! (극장식 웨딩홀) 만족도!!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업체선정!! 675-8500 (광주대학교 입구)